



# 영원한 푸른 제복을 입는다

김지자/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걸스카우트 서울연맹장

## 필

자는 사범대학의 교육학과 졸업 후 처음 입사했던 동아방송국의 기자생활을 '70년 유—— 학의 길을 떠나면서 종료하고, 학위 논문 자료수집을 위해 미국의 인구협회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연구비가 인연이 되어, 우리 나라의 가족계획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다.

특히 “가정의 벚”은 유학에서 돌아와 가족계획 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 책 속의 글을 읽는 재미도 있었지만, 인구문제와 가족계획 사업의 계몽 및 홍보용 책자로서의 그 내용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분석 평가를 했었다.

그래서 한때는 가족계획협회의 지도부로부터 눈총을 받기도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정의 벚”은 우리 가정의 가족계획 실천과 우리 자녀들의 성장 시기에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그리게 하는데 좋은 길잡이로서 큰 역할을 해 주었다.

'81년 2월말 서울교육대학으로 옮겨온 이후부터 나의 관심은 정규학교 교육과 교사들의 문제 그리고 여성사회교육에 모아지게 되면서 직접적인 가족 계획사업으로부터 멀어져왔고 “가정의 벚”에 대한 관심도 끊긴 상태로 세월이 흘렀다.

'98년 2월 나는 한국걸스카우트 서울특별시 연맹의 연맹장으로 초청을 받았다. 이러한 결정은, 걸스카우트의 조직과 활동이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서울시내 걸스카우트 대원들의 70퍼센트 이상이 초등학생이고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대다수가 서울교육대학을 졸업한 초등교사들이란 점을 감안하면, 서울교육대학의 교수이고, 특히 사회 평생교육의 전공자로 알려진 내가 다른 사람들 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사실 나는 고교 시절부터 걸스카우트의 대원으로 활동을 했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하여 스카우트의 활동에 참여한 스카우트 애호가이다. 그러나 막상 연맹장으로서의 나의 역할은 보람보다는 고뇌와 좌절의 연속이었다.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민주적인 지도자의 자세며, 하의상달, 대화에 의한 조직의 운영과 활성화 등등, 내가 강단에서 부르짖던 아이디어는 어디셔도 맞지 않는 골동품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알고 수락은 하였지만 IMF와 맞물려 찾아오는 전반적인 경제난은 기구의 축소와 예산 및 인원의 감축 등으로 엄청난 진통을 치러 내야 했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기도를 드리는 나를 보며 내 남편도 편하지 못한 밤을 수없이 보내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수없이 되뇌이며 뿌듯한 행복감에 젖어 걸스카우트의 푸른 제복을 차려 입는다.

밤이 늦도록 일하는 연맹의 사무국 직원들, 소녀들을 위해 위원장으로, 분과위원으로 시간과 노력과 금전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는 수많은 자원 봉사자들, 일선 학교의 교사들과 교장선생님들, 심지어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님과 장학사, 교육구청장님들, 그리고 서울시의 시장님과 구청장님들 까지도 걸스카우트를 위하여 이모저모로 도와주시는 것을 보며 나는 엄청난 힘을 얻는다.

끝으로 나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가정의 벚”이 앞으로 걸스카우트의 지도자들에게 가족계획, 가족복지 그리고 성교육의 중요성과 그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일깨워 주는데 좋은 도우미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우리의 소녀들이 멋진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이다.